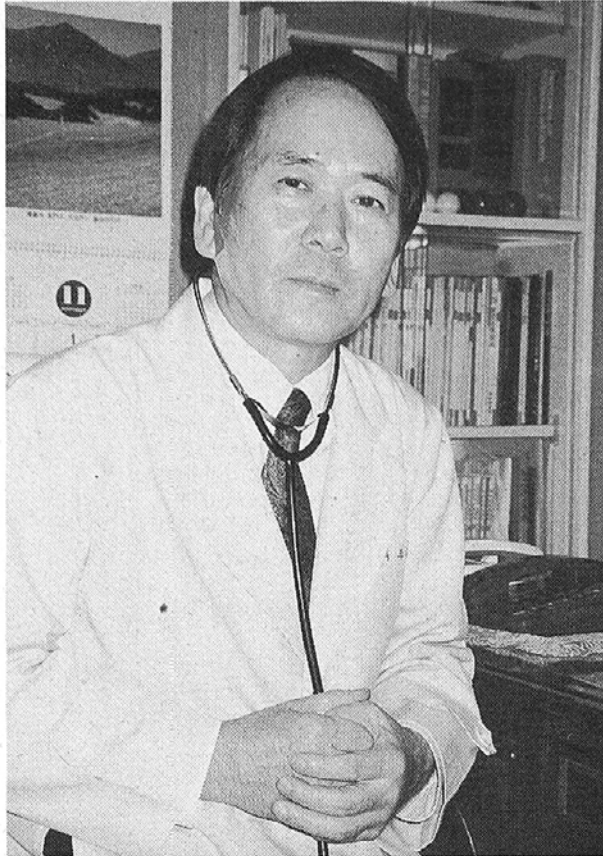


# “상처와 아픔까지 다스려야죠”

## 산문박의 禪

최내과의원 최두석 원장



원초적으로 인간은 죽기까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인생은 어쩌면 크고작은 질병과의 싸움일 수도 있다. 그 '질병과의 전쟁'에서는 제3자 개입이 허용된다. 의사가 바로 그들이다.

'의사'를 사전에서는 '의술과 약으로써 병을 고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를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해결해 주는 의료기술자로 보지 않는다. 인간의 몸, 나아가서는 그 마음까지도 치료해야 하는 의료행위는 가장 인간적이고 숭고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초교리가 적힌 불자수첩을 내보이며 시간이 나면 읽어보고 또 가까운 사람을 찾아보고도 정중하게 관해보기도 한다. '진법'을 그는 수행방법으로 택한 것이다.

"지금껏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나 스스로의 의료행위에 대해 회의(懷疑)해 본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흔한 인플루엔자 즉 감기를 예로 들자면 이는 간단한 약물치료로 대부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치료방식은 현상적 대응요법에 불과하다 보니 질병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회의하는 것은 되풀이 되는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양대 포교사반 입학**

부산 교정동 시장동에서 23년째 '최내과의원'을 지키고 있는 최두석(崔斗錫, 58)원장도 그 숭고한 의술의 길을 걷고있는 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이십년이 넘게 환자를 치료하다 보

그의 회의는 불교일기와 얹의 실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여서 어려서부터 불교적 정서 속에서 살아오긴 했으나 절집을 열심히 찾아다니지는 못했다. 그러나 수개월 전 가까운 친구의 권유로 부산불교교육대학 제5기 포교사반에 입학하면서 그의 삶

## 현대의학 한계 느낄 때마다 '반야심경'으로 치료 보름마다 복지관 무료진료... '보시행 내는 삶' 지향

니 환자들의 질병상태가 정형화된 틀로써 머릿속에 그려지더군요. 결국 유형별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지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틀에 짜맞춰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단을 달린다는 현대의 의학의 한계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깁니다. 나는 그것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의 '마음 다스리기'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살 남짓한 그의 진료실에는 청진기와 주사바늘, 의학서적만 비치되어 있지 않다. (반야심경) (금강경) (불자수첩) 등이 책상 한켠에 수북히 쌓여 있어 환자들을 의아하게 한다. 진료가 끝나면 그가 환자들에게 어김없이 던지는 한마디 "종교가 있으십니까?" "없다"는 대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는 의사가 아닌 포교사로 변신한다. 불교의 기

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맞게된다. 그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한 차원 높은 면을 불교공부로부터 조금씩 발견해 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몸은 온갖 의료기구를 동원하여 치료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숭고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인간의 몸과 그것을 휘감고 있는 영성(靈性)은 곧 작은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그같은 작은 우주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치료행위는 성스럽기까지 한 것이죠. 태양계를 포함한 거대한 우주의 일부분이 잘못되면 우주전체의 질서가 혼돈스러워지듯이 한사람의 몸이 이상이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기가 전염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어요?"

(화엄경)에는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의 형상 속에는 다른 많은 형상이 포함되

어 있으며 복잡한 형상일지라도 하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우주 만상이 대립하지 않고 서로 융합하여 무한하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법명 慧日로 계발아**

최두석씨는 요즘 무승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현스님)으로 무료진료를 나간다. 매일 두번씩,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진료에는 최씨 뿐만 아니라 그가 처음 무료진료를 청탁(?)하여 가까이 동참한 세양병원 의사, 약사,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요일을 달리하여 참가하고 있다.

이같은 무료진료 활동은 생사를 누굽다 많이 보아왔을 그에게 있어 생사와 열반의 모습을 보고 생사를 여의고 열반을 구하는 상발심(相發心)의 초발심에 닿아있다. 그리고 '하나속의 전체와 전체속의 하나'가 갖는 뜻을

체함하는 것도 그에게는 더없이 큰 공부다.

"나의 무료진료는 해(解)와 행(行)을 일치시켜보려는 노력의 한 방편입니다. 깨닫기 위한 노력에 실천이 병행되지 않으면 허황된 귀면론자의 요설(詭說)에 불과하니까요."

얼마전 해일(慧日)이라는 법명으로 계를 받은 그는 지난 69년 월남전에 군의관으로 참전했을 당시 군부사에게서 받은 법명이 똑같은 해일이었으나 계첩을 잃어버려 늘 아쉬웠다고 한다. 동일한 법명으로 계를 내려준 불기에 지극정성으로 귀의해야 할 운명을 타고 났다고 말하는 최씨는 "한때는 따증으로 환자들을 대하기도 했으나 요즘은 한 생각 돌이켜 마음이 편안하니 얼굴도 밝아지고 환자들의 회복도 빠른 것 같다"며 웃는다.

부산=박병근 기사



심화·이기선

## 자애심으로 지혜내는 우바이

한국의 불교 신자 가운데는 여성 신도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종교가 그렇듯이 여성들의 회교대(希求臺)가 강한 것이 상식이다. 왜인가. 여성의 성품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애심이다. 이 자애심은 모성애에서 비롯하는 마음이다.

바로 비부(毘浮)우바이요, 설법을 잘하는 이는 양갈사우바이요, 경전 뜻을 잘 연결하는 이는 바로 발타바라수염마(跋陀婆羅須髮摩)우바이요. 외도를 항복받는 이는 바로 바수타(婆修陀)우바이요, 음성이 맑고 트인 이는 바로 무

고요한 이는 바로 최승(最勝)우바이요, 많이 듣고 널리 아는 이는 바로 니라(泥羅)우바이요, 계승을 잘짓는 이는 바로 수달(須達)의 딸 수마가제우바이요, 겁내지 않는 이도 바로 수달의 딸이요, 내 성문 가운데서 최후에 깨달은 우바이는 바로 람(藍)우바이다."

목적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54

청신녀(淸信女)

여성의 심성에서 이 자애심이 결여된다면 무미하고 건조할 것이다. 밥상머리에서 수저를 집어주거나, 옷깃을 여미어준다면 다정한 감정이 입되기도 한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감싸주는 손길에 있다. 그 손길은 자비로 구현되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처럼 어머니의 여성이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거룩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 불자가 신앙속에서 자애로운 구현 되면 최고의 목적을 달성

하더라도 할 수 있는가. 이에 비견하는 종교적 신앙으로 구현되어 폭넓은 목적성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불교 신자가 있었다. 이들 신자들도 공부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 왔는가(중일야합경) '청신녀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법하고 있다.

즉 도를 깨친 청신녀, 지혜가 빛나는 사람, 좌선에 열중한 우바이, 세간지혜를 갖춘 사람, 설법 잘하는 사람, 경문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외도를 항복받는 사람들 많은 재가 청신녀가 제 나름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는 자신만 믿고 공력을 쌓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원력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여자 신도는 수동적 신앙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성적인 자애로움이

수동적 기도 탈피 이타행 펴야

우(無憂)우바이요, 여려가지로 의논하는 이는 바로 바라타(婆羅陀)우바이요, 용맹스레 정진하는 이는 바로 수두(須頭)우바이이다."

"내 재가 중의 첫째 우바이로서, 항상 욕망을 찾는 이는 바로 무우(無憂)우바이요, 공삼매(空三昧)를 닦는 이는 바로 비수선(毘曇)우바이요, 생각을 삼매(無想三昧)를 닦는 이는 바로 유나타(優那陀)우바이요, 소원없는 삼매(無願三昧)를 닦는 이는 바로 무구(無垢)우바이요,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이는 가리부인(尸利夫人)우바이요, 계율을 잘 가지는 이는 양갈마(養伽摩)우바이이다. 얼굴이 단정한 이는 바로 뇌염(羅睺)우바이요, 모든 감각기관이

지혜로 빛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도를 항복시키는 위력이 나오게 된다. 우위를 주변에는 의도가 득세하여 세상 일을 모두 저네들이 감당하고 저들만 할 수 있다고 독선의 나팔을 불고 있는데 우리네 불자 여성은 가만히 자애만 꽃피우고 있으면 되는 걸까. 남을 가르치는 원력도 세우고, 겁내지 않는 위신력도 길러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우바이 여성신도가 수구적 기도형태에서 능행적 발보리를 하게 되면 집안은 물론이요, 사회의 위안질이 더욱 환하게 될 것이다. 이 길은 부처님께서 청신녀의 덕목으로 알려 주셨다고 본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뱃따리야 지음 장익 옮김

● 신국판 / 284면 / 값 6,000원

● 신국판 / 376면 / 값 12,000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을 예약 준비해드림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해운대 • 김문소 • 기성 • 용산  
용궁사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송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0) 722-7755